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전경영실 재난안전부 박기철 부장(061-338-6711) / 제공일: 2021. 10. 27 (총 1매)

농어촌공사,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

○ 저수지 붕괴상황 가정해 단계별 대응상황과 유관기관 연계 대응전략 토론

- ☐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27일 장성지사에서 장성군, 장성소방서, 503보병여단 등 7개 기관과 ‘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’을 실시했다.
- ☐ 올해 훈련은 최근 빈번해지는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위해 재난전문가를 초빙해 취약점과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.
- 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훈련 대신 본사-본부-지사를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지사에서는 유관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2원화 방식으로 이뤄졌다.
- ☐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진으로 저수지가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피이동 경로, 대피장소 등을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직접 보며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이해도와 생동감을 높였다.
- ☐ 또한, 상황에 따른 참여기관별 대응전략 시스템을 공유하고, 상황 단계별 주요쟁점을 자유토론으로 진행해 훈련의 현장 적용력을 향상시켰다.
- ☐ 김인식 사장은 “재난 피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